

# 북한개발소식

2023 FEB

02

통권 208호

이달의 주제

2023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이끄심-2화

북한뉴스

북한 전원회의 결과보고...

강대강 원칙 재확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2023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3 FEB



이달의 주제 :

### 2023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권두칼럼	01	2023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칼럼_1	07	오일환_ 2023년 북한 전망
칼럼_2	13	최경희_ 북한의 대동란과 2023년: 절망과 기대
칼럼_3	17	안찬일_ 2023년 북한 정세 전망과 북한 복음화
인터뷰	23	송혜연_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하)
탈북민 수기	30	김서윤_ 이끄심-2화
북한뉴스	35	북한 전원회의 결과보고... 강대강 원칙 재확인 외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외



2022년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도발과 그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훈련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긴장이 감도는 한 해였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올해는 한반도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이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어져왔던 북한의 코로나 봉쇄 상황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활발한 군사적 움직임을 볼 때 우려스러운 점들도 많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제8기 6차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발표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예상 행보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에 대한 전망과 기도 제목을 꼽아보고자 한다.

### 코로나 종식 원년에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북한

2022년 북한은 상당히 다사다난했다. 먼저 이례적인 다수의 군사 행동이 있었다. 22년 초부터 각종 무력시위와 미사일 발사가 이어

졌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방사포 사격과 공군 훈련까지 실시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한 우려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년 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법과 21년 비사 회주의 단속 기관인 82연합지휘부 조직 및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등으로 가시화되었던 사상 통제와 이와 관련된 고강도의 단속, 검열, 그리고 처벌이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은 22년 북한 사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지난 5월 북한은 그 동안 완벽하게 막아왔다고 주장했던 코로나19 발병과 전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이후 공식적으로 4백만이 넘는 발열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외 봉쇄조치가 한동안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3개월 만인 8월에 들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북한은 매우 소수의 코로나 사망자수 외에는 제대로 된 코로나 피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시적인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

을 고려해볼 때 그 피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그 여파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대규모 발병을 통한 일종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으로도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한 만큼, 2023년은 그 동안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국경을 꼭꼭 잠가왔던 북한이 정책적 방향을 조정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 가운데서 북한 당국의 새해 정책적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위 제 8기 6차 전원회의가 지난 12월 말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다섯 가지 의제가 다루어졌고, 사흘간 지속된 김정은의 보고,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 진행, 네 건의 결정서 채택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은 전원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공개하였다. 대신 전에 비해 체제선전과 핵무력을 앞세운 공세적인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이색적인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가지기도 하고 신년맞이 행사도 15만 명을 수용하는 평양 5.1경기장에서 대규모로 진행했다.

전원회의 결과발표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행보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줄 곳 보여 왔던 강경한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시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하는 모습, 특히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중심으로 올해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전술핵무기로 평가되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이를 시사한다.

반면 코로나19 종식으로 기대되었던 경제 부분에서의 비전 제시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욱 미흡했다. 2022년 경제성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생략되었고 역점과제 중심의 건설 성과와 농촌 개선, 국가위기대응능력 제고가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대신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국가 존망이 판가리’ 등의 표현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대한 강조가 그 빈곳을 채웠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2023년 과업의 총체적 방향을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새해에 달성해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제시했다고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작년 한 해의 경제적 성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전원회의에서는 최근 김정은의 당건설 사상이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5대방향’이 〈새 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으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기념 강연(2022.10.17)에서 제시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당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노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250명으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 중 20%에 달하는 51명의 중앙위원회 인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올 해에도 군사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2023년이 한반

도 군사적 긴장이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에만 한미연합훈련이 역대 급인 20여 개 가량이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다수 진행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sup>1</sup>

북한의 행보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의 인정과 이를 통한 제재 해제라는 기존의 북한의 대외전략 방향의 지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공포한 대외전략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면돌파전’의 연속이라고 정리했다. 즉 북한은 정면돌파전의 핵심인 사상무장을 강화하여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 도움 없이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견디면서, 핵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sup>2</sup>

## 북한의 여전한 핵에 대한 집착과 그 우려

어찌 보면 북한이 핵무력 증강과 군사 강경노선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사실은 작년 한 해

내내 북한이 보여 왔던 태도의 연장선으로서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이 그간의 코로나 봉쇄로 인하여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분에서는 무언가 전향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진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부분의 비전 제시와 정책 추진에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경제부분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경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전원회의 결과발표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경제상황은 예상대로 상당히 좋지 않고 내세울 만한 성과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생보다 핵 개발을 우선한다는 북한 당국의 결정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충분한 통치자금 확보만 가능하다면 핵위협과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핵보유국으로의 인정 및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sup>3</sup> 이는 동시에 제재 해제를 얻어야만 실현 가능한 민생 경제 회

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23), “북한 제8기 제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01 (23.01.02),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olId=1550860>>

2 박원곤 (2023), “EAI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④ 다시 선포된 ‘정면돌파전’: 2023년 북한의 선행(先核) 노선과 한계”, 동아시아연구소 이슈브리핑 (2023.01.09.)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670&board=kor\\_is-suebriefing](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670&board=kor_is-suebriefing)>

3 오경섭 (2023), “핵 보유의 역설과 병진 노선의 이해”,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01 (23.01.02),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olId=1550910>>

북은 당분간 접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현 북한 정권은 정권을 지탱하는 승리연합<sup>4</sup>의 정치적 충성을 매수하고,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당·군부·감시기구 등을 작동시키고, 정권의 최우선 핵심사업인 핵·미사일 개발 및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달러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로 통치자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이는 정권의 불안 증폭으로 이어졌다. 정권 안보를 위해 개발한 핵 무력으로 인해 정권이 불안해지는 핵 보유의 역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섭 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분야의 주된 관심은 통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핵 보유의 역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지출은 정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이를 통한 정권의 통치자금 확보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비록 민생 경제를 더 희생시키고 장기전이 되더라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반드시 얻어내고 말겠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주었다고 할

4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은 뉴욕대학교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등이 제시한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선출인단(selectorate)은 어떤 조직이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뜻하는데 선출인단 중에서 권력을 차지하는데 필요한 지지자의 규모를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이라 부른다. 지도자는 바로 이 승리연합으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낼 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승리연합의 규모가 광범위하지만, 독재 국가는 군부를 비롯한 소수의 엘리트만 내편으로 만들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승리연합이 협소하다.



수 있다. 결국 북한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2020년부터 본격화된 ‘대미 장기전체제’”는 “공세와 통제 중심의 극단적 형식을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sup>5</sup>이다.

## 장기전을 선언했지만 조급할 수밖에 없는 북한

이렇게 장기전을 선택한 북한의 결정에는 현 국제정세가 이러한 전략 추진의 적기라는 판단이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와 러우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세계와의 갈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과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 역시 이를 의식하는 듯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현재 관찰되는 국제적 “진영 갈등”이 과거 냉전 시기와 같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전보다 강력한 군사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

5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2023), 앞의 글

의 결단과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러한 상황 인식에는 여러 위협과 약점이 엿보인다. 먼저 국제적 역학 관계를 속단할 수 없다. 미중 관계의 경우 여전히 갈등 요소는 있지만 시진핑 3기 이후에는 대결구도가 더 심화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개선의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비록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전쟁과 양안 문제 등과 관련한 긴장은 여전하지만 그 와중에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회복하였다.<sup>6</sup>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후 중단되었던 미중 대화도 새해를 맞아 재개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도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막는 데는 기여하기는 했지만 러시아도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결속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없이 제재를 해제시켜줄 명분이 더욱 약해진 측면이 있다.

특히 과거 냉전시기와는 달리 북중러의 결속은 하나의 진영이라 부르기엔 불충분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다. 박원곤 교수는 현 북중, 북러, 중러 관계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이 아닌 각자의 편의에 따른 결합에 가까우며 미국에 대응한 단기

6 “걸으면 탈중국 외치지만...작년 미중 교역량 사상 최대”, 연합뉴스 (2023.01.18.) <<https://www.yna.co.kr/view/MYH20230118008200032>>



적인 협력은 가능하지만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미중이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면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한반도 안정’에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7차 핵 실험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sup>7</sup> 경제 부분에서도 위협 요소가 있다. 이미 국가 경제를 일정부분 희생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상존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협 등이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경제난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민심을 악화시킨다면 당국 입장에서도 무언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민간의 위협 요소를 외부의 적에 대한 강조와 강력한 사상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인다.

##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기도

최근까지 북한의 행보와 이번 전원회의 결과

7 박원곤(2023), 위의 글

# 2023년 북한 전망

오 일 환 (한양대 겸임교수)

2023년을 맞이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국내외 요인에 의한 경제난을 비롯하여 전면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와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난 가중으로 일반 주민은 물론 엘리트들의 생계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 분석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신년사는 새해 분야별 과업을 제시하며, 통상 대내 정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순으로 구성되는데, 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절대적 지침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금년 2023년에도 김정은 신년사는 4년 연속해서 또 다시 건너뛰었다. 대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신년 정책노선을 가다듬어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공표 내용을 보면 각 부문별 결산이 있기는 하지만, 내세울만한 별다른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년 북한 전망은 지난 12월 26

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이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전원확대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덕훈·조용원·최룡해·박정천·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가했는데, 2022년을 결산하고 2023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정은은 “당 제8차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우리당이 혁명의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고난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었다고 평가하고, “간고한 행정에서 쟁취한 성과와 함께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한 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더욱 격양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을 세우고,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의정 토의에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12월 27일자 로

발표 등을 살펴볼 때,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를 위한 더 많은 기도의 필요를 알 수 있다. 북한은 올 해에도 강경한 군사적 발언을 쏟아내고 지속적인 무력시위와 함께 추가적인 핵실험의 위협을 여전히 이어갈 것으로 확실시된다. 유사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 진영 갈등 강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필요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의 재개 및 NGO와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도 쉽지 않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올해 경제 정책을 살펴볼 때 유감스럽게도 민생 경제의 회복보다는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봉쇄 해제에 따라 어느 정도 대외무역 재개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문제의 근본인 제재 해제와 대대적인 대외 교역 확대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당국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자력 강생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위협을 비롯한 보건 의료 부분의 취약점도 우려스럽다. 위드코로나를 채택한 중국이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을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 선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조급씩 북한으로부터 외부와의 교역과 비즈니스를 위한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올 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고 영국 육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북한 당국의 행보는 우려스럽지만 코로나19 봉쇄 상황과 비교하면 사역의 기회는 분명 더 확대될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두 손을 모으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올해 시작은 우려와 걱정이었지만 마무리는 소망과 감사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 22년의 마지막 날 당 중앙위 본부청사 정원에서 진행됐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 방사포들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진=NK조선)〉

동신문은 “보고에서는 류레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국력이 강화되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방대한 과업 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된 데 대하여 언급되고, 이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상세히 분석평가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내부 문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로 복합위기에 봉착해 있다. 로동신문 1월 3일자에서도 “우리 앞에는 의연 피할 수도 예룰 수도 없는 난관들이 버티고 있”다며 “조성된 정세와 조건은 엄혹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내부 결속을 위해 ‘자력강생’이나 ‘간고분투’ 같은 선전·선동 슬로건을 내세워 애써 주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 하지만, 그 약발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장기간 진행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방력 강화와 대미·대남 대적 행동의 메시지를 구체

적으로 적극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을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쫓치는 남조선 괴뢰들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통한 북한의 대남 위협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이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의 제2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제시했다. 유사시 대남 선제 핵 공격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은은 전원회의 직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정원에서 600mm 초대형방사포 30문의 증정식을 개최했고, 연설에서 이 방사포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1일과 1월 1일 연이어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자행한 후에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적’인 남한에 대해 보다 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전례 없는 호전적인 대남 강경책은 크게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력,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강대강 대응

기조로서, 공세성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며 미국과 한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신냉전 질서가 유지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예고했고, 제7차 핵실험도 김정은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호전적 행태로 보아 당분간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핵국가인 한국은 마땅히 미국과 함께 대북 억제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적극 편승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그저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동맹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상시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한미는 작년 11월, 아직 핵 공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선언적 수준이기는 했지만, 핵 보복 절차 구체화와 보복 훈련 공동 실시 등에 합의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핵 보복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

는 공포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독자적 수단 이든, 미국 전술핵 재반입 또는 나토식 핵 공유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핵 능력에 편승하는 전략이야말로 핵 무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적어도 미국의 한반도 핵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미 양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 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해 11월 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깊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왼쪽)이 22년 11월 3일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논의하였다. 당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

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핵전력운용 공동기획(JP)과 공동연습(JE)은 미국의 핵전략 수립 및 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양 국방장관은 제54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비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양국은 당시 확장억제에 대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관련 운용 연습(DSCCTX)을 연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된 강력한 확장억제력으로 북핵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사용과 같은 무모한 행동 계획하고 있는 한 자신들 역시 상상을 초월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수단은,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도모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

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에 맞서는 노력은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및 발사에 앞서 12월 30일 국방부는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 시험 발사에 대해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전원회의는 북한 내부의 경제 및 사회분야 평가와 2023년 전망과 관련해 2023년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적 의미를 갖는 세 번째 해”임을 강조하고, “인민경제의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했지만, 전원회의 이후 보도 내용에는 2023년의 구체적인 경제지표와 ‘12개 중요 고지’가 무엇인지, 그 ‘점령방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보다는 내부 결속과 대남 위협으로 체제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는 한 그 운영·유지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다. 가뜰이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의 주민소득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주민의 40%인 1,100만명 정도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내부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이 신년사를 내놓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서는 주민에게 내놓을 비전과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신년사를 내놓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내 경제 여건의 악화, 중국과의 교역의 난관, 대북제재 상황 등 국내외 환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의 2023년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 19까지 겹쳐진 퇴양난인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언제든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나설 경우 변종의 유입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경제 협력사업, 활발한 교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혈맹’인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철저히 유지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근 급선회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시금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2023년 새해의 북한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북한이 코로나 19 재확산을 염려하여 국경 봉쇄로 방역 고삐를 크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북·중 경제 교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가

# 북한의 대동란과 2023년: 절망과 기대

최 경 희 (사단법인 SAND연구소장)



〈20년 10월 10일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3중고(대북제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수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연설간 울먹이는 김정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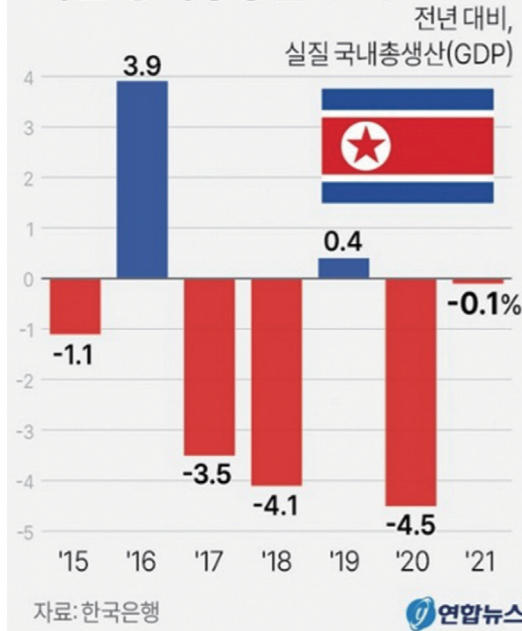
북한은 2022년을 역사에 특기할 해로, ‘건국 이래 대동란’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표현을 빌리면 2022년은 “악착스레 덮쳐들던 죽음의 병마와 싸우며 자연의 횡포와 침략의 도전들을 물리치던”<sup>1</sup> 절박했던 ‘시련의 해’였다. 대내외 코로나-19의 확산, 연이은 태풍·장마·가뭄 등 자연재해, 핵개발로 인한 국제

1 설화시 ‘당িয়ে 그대 있기에’ 리옥향, 김철우, 평양: 2023 신년경축대공연 중에서

적 경제제재 등 폐쇄된 환경의 지속에 따른 ‘3중고’ 심각성을 드러낸 위기의식의 표출이었다. 북한은 2020년 1월 22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북·중 국경을 전격 봉쇄했다. 철도, 항공, 선박 운행도 중단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다. 코로나-19는 북한 지도부도 피해가지 못한 듯하다. 8월 10일 김여정 당 부부장은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언급해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3년간의 ‘3중고’ 현실은 대동란의 시대, 사회의 무질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그럼 2023년 들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한 제14기 제8차 최고인민회의(2023.1.17~18)를 통해 북한 사회의 실정을 들여다보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평

##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어렵고, 이는 또한 외화난을 초래해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만성적인 경제난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가 어려워 수입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코로나 19 사태의 결합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당국에 대한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북한 지도부는 주민 단속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로동신문 1월 3일자 “5개년 계획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부문 앞에 나선 과업은 중대하다”며 “더욱 더 투철해진 자립의 의지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하

여 힘차게 일해 나가자”고 다그쳤다. 자본 및 자원 확보 등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발성을 상실한 주민들을 독려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 사회는 엘리트와 주민의 사상 이완이나 체제 이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일 김정은 정권이 관료주의와 세도 부리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K-Culture가 북한의 신세대 사이에 파고들어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하여,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했을 경우 노동교화형 5~15년을 선고하고, 복제·배포를 비롯하여 판매를 한 경우에는 무기나 사형에 처하는 가혹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북한 당국은 불시 가가호호 단속이나 불심검문 등으로 북한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도도한 역사의 새 물결을 거스르기엔 한계가 있는 법이다. 🐟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문화어 사용을 독려해왔으나 조선말 표준어를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평양 문화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2020년 12월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개인주의적이며 반사회주의적인 행동을 단속하고 남한식 헤어스타일, 옷차림, 말투, 노래 등을 ‘위험한 독약’으로 비유하며 통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언어와 사고, 행동 양식을 통제하며 외부문화 유입, 유포, 사용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의 무질서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세금징수 미흡’을 질타하고 이를 “간부들의 사상 부족”을 탓하고 있어 극심한 생활고가 충성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범 국가 재정상은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 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 납부계획을 미달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일부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 기업리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

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간부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세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진 원인이 간부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만큼 사상적 와해 현상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난해 33.3% 증액한 코로나 방역예산, 그리고 전체 예산의 15.9%를 차지하는 국방부문 예산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농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4.7% 증가한 점도 어려운 경제 식량 상황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직전에 등장했던 ‘맨밥에 된장 찌어 먹어도’라는 경제난을 상징하는 표현이 노동신문에 ‘인간의 고상한 품성-청렴결백성’(2022.11.17.) 제하 기사로 재등장했다. 기사는 “맨밥에 된장을 찌어 먹어도 당의 신임 속에 혁명을 하면 그만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부들에게 청렴결백을 주문한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경제 사정이 점차 더 악화함에 따라 배급이 일부 중단된 90년대 초반 북한에서 나온 표현을 사용하여 지금의 경제난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곤궁에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자연현상(자연재해)이나 국제적 보편성(코로나-19), 외부의 적대 행위에 원인을 돌리며 ‘경제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작년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 연설에서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언급했다.〉

업에서의 침체와 후퇴는 회복할 수 있지만 교양사업은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온다’(2022.2.26.~28일 초급당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연설)고 강조하며 중앙검찰소 기능을 강화하여 법적 통제, 감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의 권위가 추락하는 문구들이 발견되고 ‘당중앙 권위보위전’, ‘존엄사수전’, ‘결사옹위’를 강조하며 건국 이래 가장 간고한 시기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사상 최악의 시기라며 어려운 실태를 토로하는 사정과 맥을 같이한다.

김정은은 절망의 해를 경험하며 2023년을 향해 ‘새시대 5대 당건설 방향’을 제시했다.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로 구성된 5대 당건설 방향은 당중앙

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전당의 조직적 결속,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경향과 투쟁 강도를 높이고, 무질서와 부정적 현상을 억제하고, 간부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질데 대한 내용이다. 즉, 김정은 중심의 권력체계 재확립에 중점을 두고 정전협정(1953.7.27.) 70주년과 공화국창건(1948.9.9.) 75주년을 명분으로 내부 결속 강화와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도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외정책은 대내정치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에 있어서 대남도발은 국내정치의 중요한 요소이며 체제 정당성의 강력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내부의 모든 어려움의 원

# 2023년 북한 정세 전망과 북한 복음화

안 찬 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 1. 2022년에 이어 ‘미사일의 해’가 될 2023년

북한 정권은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미사일 발사와 특히 전략군사령부의 전략핵 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갈 것 같다. 북한은 올해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갈등과 국제정세 다극화는金正은의 군사 모험주의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는 곧 한미의 대응 전략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金正은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투자를 독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金正은 정권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자기 파멸의 길로 질주할 수밖에 없다.

오는 3월은金正은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다.金正은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집에 따른 민생 악화로 내부 반발이 점증하고 있는 사실에 초조감을 느끼면서 내부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

난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내세웠으나 경제 분야에 성과가 없자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 운운하면서 이를 사실상 폐기하기도 했다.

2021년 노동당 전원회의는 '농촌 발전 방향 제시' 등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원회의는 일주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이러한 과업 제시가 없었다.金正은이 사흘간에 걸쳐 보고했다는 '2023년도 사업계획' 내용도 갈수록 간결해지고 있고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金正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번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의 패배주의와 기술 신비주의를 언급하면서 "늙은 사상이 잠재해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층 내에 '자력갱생 노선'이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내부의 정책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북한이 말하는 '기술 신비주의'는 자체의 역량이나 기술로는 일정한 한

인을 외부의 적인 남한에 돌리고 남한식 한류 문화 유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며 '색다른 물건들'을 바이러스 유입 매개물로 지정하는 등 남한과 적대적, 강대강의 관계를 고취시킬 것이다. 따라서 2023년 남북관계는 각각 정권수립 75주년과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시기로 윤석열 정부의 '자유' 가치와 북한의 '수령' 가치가 충돌하는 정통성 경쟁이 예상된다.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는가', '수령 1인의 존엄만 존재하는가'라는 가치대립이 인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이 2022년 초부터 전술핵, 전략핵 혼용 발사와 실전배치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시해오는 가운데 지난해에 38회, 9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발 행위이다. 이러한 군국주의적 행보에 금년도 정전협정일이 북미, 남북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계기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화성-17형의 연이은 발사시험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히지만, 남북관계에서 절대

병기 완성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전략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는 핵무력 운영 법제화를 이룬 북한 도발이 이전보다 과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에도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서 즉각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북한 핵에 대한 압도적 대응 수단이 준비되어야 심리적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 자국 주민의 최소한 생존 양식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핵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金正은 정권에 상대주의적 원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구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계가 있으니 서방 등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이나 교역,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정은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해 왔다.

## 2.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전력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들의 재래식 전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모 면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랭킹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북한의 병력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가 지난 1월 7일(현지 시간) 세계 각국의 군인 수와 순위를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월 9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200만 명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145만 명 인도는 2위, 139만 명 미국은 3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현역 군인 120만 명으로 4위에 올랐다.

"북한은 인구의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있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월드 아틀라스는 밝혔다. 또 고립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량 빈곤을 겪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해 공격적인 계획을 자주 발표하고 있고, 미사일 시험을 통해 주변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이어 군인 수가 많은 국가는 현역 군인 85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로 나타났다. 6위는 64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7위는 57만 5000명인 이란이었다. 한국군은 55만 5000명으로 8위에 랭크됐다. 이어 베트남(47만 명), 이집트(45만 명), 튀르키예(42만 5000명), 미얀마(40만 명), 인도네시아(40만 명), 브라질(36만 명), 태국(35만 명), 콜롬비아(29만 5000명), 스리랑카(25만 명), 멕시코(25만 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군인 수와 실제 전투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월드 아틀라스의 통계가 맞다고는 보지만 군 규모와 전투력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미군과 연합한 한미동맹군의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 북한 군사력 순위는 세계 20~30위 정도로 6위에 랭크된 남한보다 아래"라며 "핵무기를 포함해 따진다면 북한 전투력 순위는 이보다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 3. 김정은의 동-서 대운하 구상

김정은이 드디어 코로나 '대동란' 이후 또다시 '대역사'의 칼을 빼 들었다. 이른바 동-서 대운하 공사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의 대운하 발언은 지난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한 연설을 한 직후 나왔다. 북한 핵무기의 운용이나 통제를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 아래 두는 결정을 하며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하는 자리에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 건설이란 초대형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꺼내든 것이다.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 이는 북한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 북한의 진로를 바꾸는 대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대운하 건설 구상은 선대 수령이자 김정은 리더십의 롤모델이라 할 김일성 주석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해군력이 동서해로 갈라져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절감한 김일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에 동서 연결 대운하 건설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0여 년의 검토 끝에 서해의 남포 지역 대동강과 동해의 함흥 용흥강(금야강)을 연결하는 라인이 유력하게 떠올랐고, 12개의 계획된 갑문 중 서해 쪽 남포·미림·봉화·성천·순천 등 5개의 갑문 건설이 완성됐다. 그러나 동해안 쪽에 높게 솟은 낭림산맥을 관통하는 게 문제였다. 북한이 제아무리 굴을 잘 뚫는다지만 많은 기계장비와 고도화된 측량기술이 필요한 낭림산맥을 관통하는 대공사를 해 낼 능력은 없었다. 결국 1970년대 들어서며 국력이 여지없이 쇠퇴하면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는 불가능한 일

이 돼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김정은의 동서 대운하 건설을 잠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에 대운하 건설 인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군부대를 동원하면 그만이다. 전술핵 배치로 전선의 군부대 재래식 전력 감축에 들어간 북한에게 인력 걱정은 없다. 둘째로는 북한에게 과연 1000리 대운하에 들어갈 원자재가 충분한지는 미지수로 공사 완공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심히 의심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혹시 북한 정권이 안보 차원에서 수공능력을 구축하는 '1000리 대수로 장성'을 만드는 건 아니냐는 것이다. 공군력이 모든 전쟁을 지배하는 현대전에서 수로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장갑무력뿐이지만 김정은에게 대수로는 그 공격력을 지연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소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어 왔다. 서해의 대표적 항구인 남포·해주·신의주와 동해 청진·원산·홍남·나진항 등을 오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측 공해상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보안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동해 지역에 밀집한 지하자원이나 철강 등을 서해로 보내고, 서해 쪽 곡창지대의 식량 등을 반대편으로 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과거 남북 해운협력을 내세워 제주해협 통과를 우리 측에 요청해 오기도 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돼 원산항에 정박시켜뒀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AGER-2)를 30년 만에 서해 쪽으로 몰래 옮겨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할 때도 북한은 미 첩보위성이나 해상검색을 우려해 가슴을 졸였다고 한다. 그때 북한은 두꺼운 철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의 '김정은의 동·서해 연결 대운하 구상의 발표 배경 및 예상 경로 추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북한 동서대운하 유력 예상경로. 최대 난공사가 될 낭림산맥 관통 구간 중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이지만 그럼에도 100m 이상의 고저 차를 극복할 선박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약 10~20km가량의 수로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 상당한 난공사가 예상된다. (사진=통일연구원, MBN보도 재인용)〉

판으로 배의 상층부를 가려 미군의 레이더를 피하며 고생했다. 그만큼 북한은 동서해 연결 운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실정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도 있다. 철도의 경우 극도로 노후화한데다 전기 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시속 30~40km 이상 달리기 어려운데다 잦은 정차로 북한 내 수송에 며칠씩 걸리기 일쑤다. 차량을 이용한 화물수송의 경우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산악이 많은데다 석유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륙 대운하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동서해 지역의 물류 운송이 원활해지고, 철도·도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철도·도로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북한으로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북한 동해에 진출하는 중국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송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국의 차관도입도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만약에 청천강 유역 이남에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은 자연 지리적으로 더욱 가까워진다고 중국의 지배자들이 계산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환동해 출해권 확보가 간접적으로나마 해결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남한의 대운하 건설 계획을 망비난 하던 북한이 갑작스레 대운하 건설 쪽으로 돌아선 배경도 흥미롭다. 지난 2006년 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구상은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만들어 연결하고 북한 대동강까지 운하 수운망을 연결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른 북한 지역의 운하 건설계획은 ▲평원 운하 379km ▲경원 운하 257km ▲평개 운하 206km ▲사리원 운하 135km ▲청천 운하 58km 등 모두 5개 구간에 총연장 1,035km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학계와 여론 반대에 밀려 백지화됐고 북한은 이명박 정부 내내 이를 대남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공론화한데다 '전망적인 경제사업'의 하나로 평가한 만큼 조만간 북한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공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는 김정은의 언급도 대운하 건설에 탄력을 붙일 게 분명하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남포·미림갑문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륙수운 체제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동고서저의 한반도 지형이다. 대동강~용흥강을 잇는 대운하 건설의 경우 험준한 낭림산맥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좌절했던 동해 쪽 구간 건설은 공법이 많이 발달한 현재도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김정은의 대

운하 건설 구상은 당분간 북한 경제에서 최고의 화두가 되기에 충분하다. 바로 김정은은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정치는 못 바꾸어도 지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발상으로 달라붙겠지만 북한의 여력으로 한반도 북쪽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운하가 과연 언제 완성될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 4.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새 인사 특징

북한은 지난해 12월 26~31일 열린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북한 노동당을 이끌어갈 다수의 간부진을 임명하였다. 노동신문의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당이 여러 난맥상에 부딪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주목을 끈다. 즉 “시련에 찬 2022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조선의 잠재력, 조선의 정신, 조선혁명의 견결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을 더 믿게 되고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 쥐게 되었으며 전면적인 발전의 로정을 더 선명하게 설계하게 되었다.”든지 또 “국가 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을 성공적으로 딛고 넘어 새로운 전진도약을 지향하는 오늘의 형세하에서 우리 혁명 앞에는 의견 피할 수도 에둘 수도 없는 장애들이 버티고 있으며 이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와 조선인민의 일치단합되고 강인하며 용감한 투쟁으로써만 타개하고 극복할수 있다.”는 독백에



〈이번 북한의 인사변동에서는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철 군 담당 비서(좌)의 해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박정철의 후임으로는 리영길 국방상(우)이 임명되었다.〉

서 노동당의 고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사 면면은 다음과 같다. 전승국, 김두일, 송영건, 박성철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방두섭, 최철웅, 박명선, 리영식, 백성국, 김용수, 김용환, 리호림, 허철용, 유진, 신기철, 김상건, 리혜정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김영식, 태형철, 김창석, 조석철, 정용남, 리성범, 김평현, 원경모, 신성국, 안승학, 허철호, 송명훈, 배성국, 김금철, 오철수, 최선일, 김선국, 장세일, 리경일, 전인철, 김두홍, 박인기, 유철우, 김성철, 최두용, 량길성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박수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주창일, 리히용, 김수길, 김상건, 강순남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해임 및 선거하였다. 박정천을 해임하고 리영길을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하였다.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박정천을 소환하고 리영길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

#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

송혜연 목사 (하나로드림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거짓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나 통계 자료가 있을 수가 없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워낙 극심하다보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으리라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송혜연 목사님(하나로드림교회)은 여러 차례의 강제 복송 가운데서도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귀한 경험을 간증해오셨습니다. 이번 북한개발소식에서는 송혜연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북한에서의 신앙, 그리고 북한을 향한 비전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가 독자들에게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고 선전하면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의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북한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북한 정부가 발표하는 이야기를 비판 없이 믿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학교

를 다니고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또 저와 같은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가슴이 참 아파요.

탈북민들의 증언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다. 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김상건을 당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제1부부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오일정, 김상건, 김용수, 리혜정을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영식을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김수길을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박태덕을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백성국을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하였다. 정부기관의 간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김철하를 화학공업상으로, 김창석을 경공업상으로, 조석철을 품질감독위원장으로, 이영식을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하였다.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박수일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강순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리태섭을 사회안전상으로 임명하였다.

## 5. 북한 복음화의 환경과 대안

북한 복음화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회는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 북한에서 단 1개의 교회도 보지 못하던 필자가 대한민국에 와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느낀 바가 이 어구와 같다. 안타깝게도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3개의 교회와 1개의 성당이 있을 뿐이다. 이것도 모두 사라졌다가 1988년 이후 겨우 생겨난 이른바 ‘박물관식 교회’들이다. 지독한 박해 속에서 지하 신자들 외에는 하나

님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 지금의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을 복음화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북한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이 안타깝다.

오늘 필자는 북한에 최소한 9개도에 9개의 교회, 즉 각 도에 한 개씩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9개 교회를 기반으로 주님의 나라로 다가가는 북한 전국 복음화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란 한 나라에 공식 교회가 3개 뿐인데 남한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는 20여 개가 훨씬 넘고 있다. 이들을 잘 장성케 한다면 북한 복음화의 전진기지는 확보되는 셈이다.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중 많은 수가 기독교 신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 역시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역사이고 뜻이다. 이렇게 남한에서 준비된 일꾼들이 북한의 지하에서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과 함께 북한 복음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의 ‘출북한기’(출애굽기)가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기독교가 탈북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아가 3만 4000명 탈북민 기독교인들, 그들을 잘 키워 북녘땅 복음화의 용맹스러운 기사들로 양성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북한은 유엔에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약 30만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0만에서 30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증언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15년도에 북한에서 전체 주민 조사를 실시했는데 함경도에서만 20만에서 30만 명이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기근 기간 동안 사라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한국의 학자들 중 상당수가 탈북민들의 증언보다 북한의 공식 발표를 신뢰해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점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연구가 그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장신대 다니던 초창기에 만난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는 예수 믿는 성도가 없고 교회

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북한에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과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지하 성도들이나 제가 그랬던 것과 같이 성경을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간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다르실까요? 아니죠. 그런데 함부로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심지어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십자가는 없지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이기에, 지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 의무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는

여러 성도들이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몰래 예배했던 것,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썼던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무시 받는다고 생각하면 속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만 말입니다.

가끔 탈북민 중에서 평소에는 이야기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북한에서 지하 성도였다, 지하에서 전도자로 살았다” 라거나 자기 어머니나 가족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몇몇 탈북민들이 자기 필요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저는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일 수도 있다고 인정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과거를 회상하는데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컴컴한 곳에 앉아서 벽을 보시며 기도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이라도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탈북해서 교회에서나 말씀 공부하면서도 어떤 찬양을 접하고 “맞다 이 찬양이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다.” 라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어요. 또

전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들 때 기도하곤 했지만 자신이 지하교회다 라는 자각까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보시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증언이 나오면 오히려 “이것 봐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의 지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네 언젠가는 북한이 열릴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대해요. 물론 실제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나 증언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모습이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지금도 그 땅에는 엘리야처럼 지쳐서 죽기를 간구할 성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속상해서 희망을 다 놓고 죽으려 하지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흘린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 땅에 흘려진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북한에서 얼마간 신앙생활을 했고 구제하고 복음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송혜연 목사 시무 하나로드림교회의 예배 모습〉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토를 달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는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의와 사랑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여러 가지로 나라를 살리려는 시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미국과의 정상 회담도 시도해보고 경제정책도 전향적으로 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결국 다 중단되었어요. 지금 들려오는 북한의 상황은 옛날보다도 더욱 엉망이에요. 여기서 엉망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잘살고 못살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북한에도 한 국가로서 체계가 있었어요. 체제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계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 받아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서, 또는 도둑질해서 가는 진짜 범죄자의 비율은 약 20%밖에 안 돼요. 거의 80%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혀가거나 경제 사범으로 잡혀들어가요. 또 감옥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살아나오고 힘없고 배경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인간

의 파괴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억울함의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이 뺏고 죽이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탈북한 30대 한 분은 어릴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골 학교에서 선발되어 평양에서 수학했어요. 그렇지만 배경도 없고 힘도 없으니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났죠. 그렇게 발령을 받아 그 지역 자기 또래들과 어울리는데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항상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뺏을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어떻게 도둑질할까” 였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정직하게 뭘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절감하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요. 가끔 해외에서 평양에 다녀와서는 북한이 너무나도 괜찮고 좋은 곳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겉으로는 높은 빌딩을 세우고 그럴듯하게 꾸몄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지금 공의와 정의가 다 상실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한 명의 북한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뭔가 채신하고자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밑에서부터 다 썩었어요. 모든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뇌물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핵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김정은이 자신의 딸 김주애를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나온 것도 우리 가족 건들지 마라는 것이겠죠.

“내 가족 건들지 마, 내 가족 건들면 이거 사용할 거야.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잘 살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너희 미국하고 싸우려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의도로 연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건드리지 마 그러면 내 건드리면 너희도 죽어” 이 말인데 사실은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해결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북한의 행보는 악할 뿐 아니라 큰 실수예요. 북한은 예수 믿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정권을 비판하는 악덕 분자로 취급해서 잡아가고 죽여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북한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실천하는 복음의 삶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정직하게 행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북한 정권은 오히려 이를 탄압하고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에스겔서를 읽어요. 그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구절이 북한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정의와 공의가 다 상실된 저 땅이 다시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저 땅이 다시 한 번 회복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이나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의 제목들과 함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아져만 가는 북한의 상황

이 변화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애써야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북한이 중국하고 전화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연선을 많이 단속했어요. 각종 장치들도 설치하구요. 그리고 코로나 국경 봉쇄로 밀수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과거에 한총련 목사님 순교하신 일도 그렇고 북한선교에 두려움과 방해로 가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물결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 옛날처럼 직접 물건을 보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재정지원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송금 브로커 통해서 어떻게든 북한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

원해요.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북한을 향한 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해서는 22년도 뿐 아니라 제작년 말에도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국은 물을 끓여 먹고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 이미 환자가 나오고 있으니 방역을 강화한 거죠. 하루는 북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아픈 친구가 있는데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대는 말이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겁니다.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처럼 실제로 사람들을 격리했으니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그만큼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코로나19 문제까지 겹치며 큰 고통을 받았어요. 열악한 환경과 경제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대한 어려운 소식이 들리거나 특히 가족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소식이 들려오면 심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최근에 북에 계신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다시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펄펄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우리 엄마도 다시 못 보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몰래 북한에 잠깐 다녀와야겠다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떠올랐어요.

그렇게 밤새 울고 기도하는데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족을 맡겨드리고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섭섭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몇 달 만에 다행히 어머니께서 회복되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천국을 믿으라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비록 이 땅에서는 만남의 기약이 없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라고 설교했는데 정작 나에게 그 일이 닥

치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그 이별의 아픔을 다스리고 있지만 탈북민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향한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탈북민 사역 교회들의 모임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북기총)을 보면 소속 교회 대부분이 많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구요. 교회 살림은 분명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게 보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들이 잘 유지되고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이끄심

2화 - Αρχή 아르케 :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2)

김 서 윤 전도사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된지도 어느덧 수 년이 지난 그 해, 부모님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어머니가 책임지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늘 팔베개를 하고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며 나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아버지를 향한 애잔한 마음이 있었다. 나는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동생들을 보러 갔다. 하지만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는 제대로 된 배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지식하게 배정된 직장에서 일하셔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나 하나도 부양하기 힘들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셨다. 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며 나를 어머니에게로 보내셨다. 출소하고 돌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고생한 만큼 갚아주겠다.” 약속하셨던 어머니는 그 약속을 기어이 지켜내셨다. 사업수완이 좋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우리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셨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동해에서 나오는 특산물(명태, 털게, 낙지 등)을 중국으로 판매하고 중국의 밀가루와 옥수수를 사 오는 중개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셨다. 나라 전체가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굶어 죽는 시기였지만 우리 집 창고는 늘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평소에도 밥을 배부르게 먹을 뿐 아니라 당시 살던 귀국자 아파트에서 이웃과 함께 농마국수<sup>1</sup>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어머니께서 잘 만드시던 깨 송편이나 생태나 오징어로 요리한 순대 등 여러 별미도 종종 해먹었다. 남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집 밖의 상황은 심각했다. 우리 학교는 지역 명문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친구가 밥을 먹지 못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도시락을 싸 오는 아이들이

<sup>1</sup> 감자녹말가루로 면을 뽑아 만드는 함경도식 국수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함흥냉면이라고 한다.

점점 사라지고 그나마 싸 온 아이들도 누가 훑쳐 먹을까 몰래몰래 음식을 먹었다. 당시 어머니는 내 도시락을 쌀 때 항상 선생님의 도시락도 싸주셨는데, 선생님은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 도시락을 드시지 않고 늘 집에 가져가 시곤 했다. 나중에는 결국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나도 분위기가 도시락을 챙겨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점심시간에는 집에 달려가서 밥을 먹곤 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밥 먹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기에 나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밥 대신 강냉이 국수를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한번은 담임 선생님이 반장인 나에게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반장과 둘이서 그 친구네 집으로 갔다. 학급 동무네 집은 언뜻 봐도 새까맣게 불에 타 있고 그 친구는 없었다. 그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드디어 친구를 봤는데 그 사이에 친구의 몸골은 말이 아니게 변해 있었다. 그 친구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는가 싶더니 애써 태연한 척 다가왔다. 나는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같이 학교에 가자고 했다. 그 친구는 나더러 뭘 알겠냐는 표정으로 “학교는 배부른 애들이나 가는 곳이지”라며 자신은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친구도 없이 돌아가면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그 자리를 쉽게 뜰 수도 없었다. 그 뒤로 그 친구를 몇 번을 더 찾아가는데 그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으로 약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약으로 돌아가셨고 친구는 어느새 부턴가 꽃제비가 되어 기차역에서 다른 꽃제비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물을 떠다 팔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안계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며 전에 어머니가 붙잡히셨던 그 때를 떠올렸다. 성경책 소지 혐의로 어머니께서 끌려가셨던 2여 년 동안 나도 살기위해 안 먹어 본 것이 없었다. 방학에 외할머니댁 밭에서 엇그제 막 심어 놓은 감자알갱이까지 다 캐서 먹었고, 한 여름에는 먹을 만한 풀뿌리도 없어서 외할머니와 함께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오기도 했다. 그렇게 벗긴 소나무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삶고 또 절구에 찧어서 옥수수 가루한 줌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동안 변비로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배에 가스가 차올라 외할머니가 나무꼬챙이를 들고 나를 따라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의 성공으로 풍족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안계셨다면 나도 친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의 풍요와 평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어머니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외삼촌은 어머니가 업어 키우다 시피 하셨다고 한다. 이사 후 오랫동안 다른 가족과 교류가 없었는데, 어머니와 남달리 우애가 좋으셨던 그 막내 외삼촌께서 수소문 끝에 우리 가족을 찾아오셨다. 두 분은 얼싸안고 기뻐하며 우셨다. 그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못했을 남동생을 위해 어머니는 한 상 부러지게 솜씨를 발휘하셨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에 외삼촌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어머니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가 출소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쓰러져 큰집이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할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악화하여 치매 증상이 나타나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셨다. 삼촌은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려 수없이 보낸 전보와 편지를 부치셨지만 어머니에게 닿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소식조차 모르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에 빠지셨다.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차마 믿을 수 없으셨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말해 달라고 외삼촌에게 부탁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본래 늘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셨고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움은 노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고, 연세 많은 두 노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식량과 물품을 아껴

쓰가며 삶을 연명하는 것뿐이었다. 그마저도 며느리들이 계속된 눈치 속에서 외할아버지는 늙은이가 짐짝이 되기 싫으시다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는 말씀을 외할머니께 자주 하셨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남부끄럽지 않게, 올곧게 살아오셨기에 기나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추한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으셨던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다. 이 사건으로 외할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치매를 앓게 되셨다.

외삼촌이 찾아와서야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졌다. 무고한 심문과 고문, 수감생활을 딛고 이제는 당과 조국에 의지하지 않겠노라며 오직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제껏 달려왔건만 결국 부모조차 챙기지 못한 처지가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일어났다. 그렇게 남동생을 붙잡고 한참을 묵 놓아 우셨다. 부모의 비통한 소식에 제정신이 아니셨던 어머니는 끼니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셨다.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어둠과 같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다. 아마도 그런 슬픔 속에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당과 조국에 대한 원망이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왔었는지,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당과 조국을 비방했다는 명목으로 고발을 당하여 보위부로 끌려가셨다.

어머니는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도

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 온 것이냐,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 없다고 잡아떼셨다. 그러자 심문관은 당과 수령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적힌 밀고서를 들이밀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24시간 재우지 않고 물고문을 자행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 차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고문하느냐고 항변하며 그 말을 들은 사람을 내 앞으로 직접 데리고 와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어머니가 잡혀가신 줄도 모르고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보위부 위원이 아파트 입구에서 인민반장<sup>2</sup>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보위원이 내게 어머니가 갖고 있어야 할 집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니 만이가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며 격려하고 떠났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이 말하는 그였지만 사실 그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의 혐의점을 찾기 위해 이미 집을 한바탕 수색한 뒤였다. 이미 한 차례 어머니가 안 계셨던 경험이 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씩씩하게 동생들을 보살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살림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밥을 지을 때 입쌀보다는 강냉이 쌀을 더 많이 섞고 하루 한 끼는 국수를 먹으며 알뜰하게 살림



을 지켰다. 그러다가도 한 밤 두 밤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돌아오시지 못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슴 졸였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토끼눈을 하고 나만 바라보는 동생들 몰래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의 불면증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 아무래도 혐의의 입증이 어렵고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평소에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른 아침에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의 얼굴은 온갖 멍으로 말할 수 없이 엉망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는 확고하게 깨달으셨다.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해도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맘 놓고 울지도 못하는 나라, 인간에 대한 어떠한 존엄과 존중도 없는 나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는 나라, 그래서 최악의 끝에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확신하게 되셨다. 이러한 확신은 지난번 성경책

<sup>2</sup> 북한 사회 인민반을 맡고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사람이다. 한 국에서의 동네 통장과 유사하다.

을 소지했다는 의혹으로 2년이 가까이 심문과 고문으로 고통 받았던 일과 함께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모조리 꺾어버렸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오늘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셨다. 그중 첫 번째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어딜 가더라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꼭 집에 와야 한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의심하지도 말고 밖에서 어른들이 어머니에 관해 묻거든 잘 모르겠다고만 하라고 우리들의 입을 주의시키셨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던 식기류들부터 시작하여 식기장, 옷장, 텔레비전까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는 우리들은 빈 적 없는 친척 집으로 여행을 갈 것인데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의 단짝 친구인 영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매번 방학이면 단짝 친구인 나와 영희는 방학 숙제도 함께 했었고, 일기와 두 달 치 방학 숙제를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끝내고 서로가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여름방학에는 수영하러 다녔고, 산천어와 메뚜기 잡으러 다녔고, 이번 겨울에는 목도리랑 손 장갑을 뜨개질해서 만들어 서로에게 선물하기로 했고, 그 장갑을 끼고 눈썰매 타러 가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미 방학 동안 알차게 보낼 시간표를 마쳤던 나는 참 속상했고 영희에게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영희에게 혹여나 잠시 어디 다녀오더라도 섭섭해 하지 말고 며칠

만 기다려 주면 꼭 영희가 갖고 싶어 했던 머리핀을 선물로 주기로 하고 친구의 마음을 달래 주었다.

그렇게 결전의 날이 밝았다. 달님도 깊이 잠든 밤, 철쭉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깨우셨다. 그리고는 아직 눈을 비비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겹으로 옷을 단단하게 입히셨다.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복을 입는데 내복이 좀 무거웠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미리 나의 내복 옷깃에 자그마한 금덩어리들을 넣고 꿰매 놓으셨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어떤 의중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상황의 엄중함과 중압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겹겹이 옷을 껴입은 우리 삼남매에게 어머니는 각자 책가방과 보자기로 묶인 짐을 챙겨주시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준비성은 철저했다. 미리 준비하신 여행증과 통행증 등 많은 뇌물이 들어갔을 절차를 미리 완료해 놓으셨다. 심지어 방학 기간에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여행 학습을 하러 간다는 증명서까지 챙겨놓으셨다. 우리의 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계속) 


## 북한 전원회의 결과보고… 강대강 원칙 재확인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향한 '강 대 강, 대적 투쟁' 기조를 재차 밝혔다. '핵무력' 중심의 국방력 강화로 한미를 상대하겠다는 '대화는 없다'라는 기조를 재확인하였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엿새간 열린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격용' 핵무기 체계를 강화시킬 방침을 밝힌 셈이다. 김정은은 남한이 자신들의 '명백한 적'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기본 중심방향'으로 삼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정은

은 대외사업, 즉 외교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에서...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 방향"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과 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새해 첫 날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을 단행하였다. 또한 군이 초대형방사포를 당에 '증정'하는 행사를 열고 "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면서 위협적 메시지를 냈다.

한편 이번 결과발표에서는 예년에 비해 경제 분야 언급이 대폭 축소됐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를 "큰 걸음을 내딛는 해", "관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새해에 달성해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다. 그 외에 농업, 건설을 강조하는 기조가 두드러졌다. 먹거리 문제와 직결된 농업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설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기간공업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경제난에 대한 눈에 띄는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김정은은 간부들의 '패배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경향'을 엄히 질책하기도 했다. 국경을 봉쇄한 채 실시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나 코로나19 관련 '달라진 기조'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 뉴스1 등 언론 보도 종합) 

##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사회 통제 강화



북한이 지난 1월 17~18일 개최된 북한 최고 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하였다.

1월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서 표준어인 평양말 외에 남한말 등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법령을 제정했고, 이번 최고 인민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람의 말을 규제하는 법령을 채택한 것은 북한 사회에 남한식 말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한다. 암암리에 남한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하면서 서울 말씨와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이 널리 퍼진 것이다. 북한이 이런 법령을 채택한 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을 넘어 외부 사조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준하는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언어 사용에 신중한 공적인 자리보다는 주로 '프락치'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적발이 이뤄지고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형태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월 19일)

## 38노스 “북한 식량부족 사태, 1990년 대기근 이래 최악”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주 식량인 쌀과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 최근 모두 급등한 가운데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쌀이 없으면 옥수수나 보리, 수수와 같은 대체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쌀 대비 옥수수의 가격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가계의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곡물가가 국제 곡물가를 웃도는 가

운데 그 가격 격차가 2021년 3월부터 눈에 띄게 더 벌어졌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망의 와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년 간 도시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유독 커진 것도 식량 불안정을 시사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가령, 식량 공급의 주요 통로인 신의주~평양 루트의 곡물가와 여기서 비껴나 있는 량강도 혜산과 같은 변방 지역의 곡물가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이 매체는 중국의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0일)

## “북 외화 보유 최소 17억달러... 소폭 증가 전망”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최소 17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양대 장형수 교수가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40억~48억 달러를 유지하다가 2017년 38억 달러, 2018년 29억 달러, 2019년 17억 달러로 크게 급감했다. 강화된 대북 제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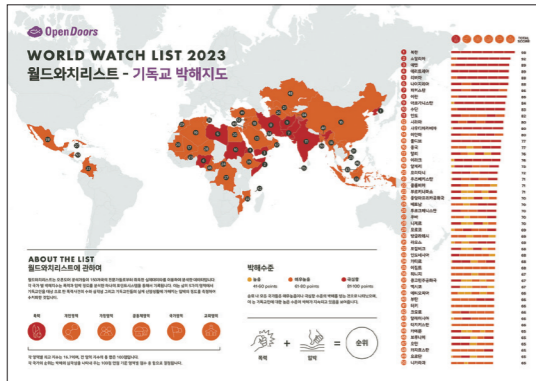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북한의 외화수급은 2021년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의 흑자, 2022년 소폭의 적자 또

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 개발과 발사 시험에도 외화보유액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범죄와 무기 거래 등의 불법적 수단,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때문으로 진단했다.

올해 북한의 외화수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억제됐던 수입 수요를 북한이 얼마나 충족시킬지, 전통적인 외화수입원과 불법 행위로부터의 외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 오픈도어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3 발표



오픈도어선교회는 1월 18일 세계기독교박해지수를 발표하고 전세계 박해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2023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3)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 약 3억 6천만명이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 3억 1200만명은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의 와해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기독교박해국가가 1993년 40개 나라에서 2023엔 76개 나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독교 박해 상위 50개 나라에선 북한이 역대 가장 높은 박해지수를 기록하며 다시 1위에 선정됐다. 북한의 경우 코로나 방역 통제가 정권의 안정과 사상적인 통제를 위해 활용됐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가혹한 위협과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선교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내에서 성경책

이나 기독교 미디어 시청 및 공유로 인한 처벌 사례들, 그리고 지하교회 비밀 예배모임이 적발되어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지난해 박해지수 1위를 기록했던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9위로 하락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또한,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IT기술을 활용해 교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이른바 '디지털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특히 이러한 기독교 억압 모델이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 인도 등 권위주의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선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폭력이 거세지면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L2023 한국 발표를 공동주최한 한국오픈도어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단순한 순위나 통계자료를 넘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도어선교회는 "극한 박해에 직면한 50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50일 기도 책자를 발간했다"며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로서 박해와 차별 속에 고난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1**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년 북한의 각종 발표와 행보는 23년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고 한미의 군사대응 강화 등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기에 자신의 안위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에도 평화의 소식보다는 대립과 긴장의 기운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이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초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3에서 북한은 다시금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감소하지 않았고 여전히 극심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박해로 인하여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겪은 순교와 고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등 코로나 기간에도 기독교 박해에 이용될 수 있는 여러 법률을 만들었던 북한은 경제 제재와 방역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더욱 강력한 통제와 억압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과오를 반성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11월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들이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억류자 석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중국이 줄곧 고수해왔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급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점차 인적 왕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시화되고 북중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앞으로의 북한선교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 속히 안정화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국면에 맞는 북한 선교의 기회가 발견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5**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생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의약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신년 북한 당국의 행보는 코로나 국면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민생 경제의 회복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장기화되는 경제난, 의약품 부족 등 걱정스러운 점이 많은 가운데 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요청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북한 당국은 국가 경제의 개선보다는 지지층의 충성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통치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외화 벌이를 위한 노동력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작년 말 중국 당국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 단둥 지역 거주 북한노동자의 수가 8만여 명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유엔안보리가 북한노동자의 해외파견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노동자가 해외로 파견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돈벌이를 위해 악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교적으로 볼 때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북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례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강의 내용

순서	일자	강의 내용 (예정)	강사
1	3. 20	북한선교와 한국 교회	하충엽 교수 (송실대)
2	3. 27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교수 (아신대)
3	4. 3	북한의 경제 (장마당과 돈주)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4	4. 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
5	4. 17	북한 기독교사	유관지 목사 (북한교회연구원)
6	4. 24	북한기독교 박해 실태 증언	박한나 목사
7	5. 1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목회	김효민 목사 (봉선중앙교회)
8	5. 8	북한인권과 북한선교	이한별 대표 (북한인권증진센터)
9	5. 15	탈북 청소년 사역	윤동주 교장 (우리들학교)
10	5. 22	비즈니스미션과 북한선교	이찬욱 사무총장 (IBA)
11	5. 29	DMZ 기도회	
12	6. 5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선교	정인수 선교사 (CCC)
13	6. 12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 (TWR)
14	6. 19	제삼국에서의 북한선교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5	6. 26	제삼국에서의 북한여성사역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6	7. 3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김성태 교수 (오픈도어선교회)
17	8월	제 삼국 비전 트립	

■ 일 시: 23년 3월 20일 - 7월 3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비전트립, DMZ기도회 별도)

■ 장 소: 헤세드 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33 / 2호선,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앞)

■ 수강 신청: 3월 1일-17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3월 20일 현장 접수

■ 등록비: 15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문 의: 이정현 간사 (010-2618-4906)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